

“行住坐臥를 언제나 마음에 담아 들지어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47) 만법귀일(萬法歸一)

해가는 달마 조사가 말한 하나(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부처님이 설한 만법귀일의 일(一)이 고불(古佛) 이래 전해져 온 삼진귀일(三眞歸一)의 하나(一)가 단순히 글자 뜻풀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가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제자는 하나(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세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달마는 그런 물음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라는 것은 무극(無極) 안에 있는 한 점(一點)의 영성(靈性)이니라. 이 하나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진경(眞經)의 골수(骨髓)이니라. 모든 백성과 만물(萬物) 그리고 일체의 영물이 모두 이 하나에서 생겨났느니라. 삼계(三界)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말미암아 생성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는 하늘(天)과 땅(地)을 안정시키고 양의(兩儀)를 판정(判定)하여 음양을 낳고, 남부(南)를 생기게 하여 인근(人根) 곧 사람의 근본을 제정(制定)하였느니라. 이 하나는 삼보(三寶)를 생기게 하고 이것이 삼교(三敎)의 강령(綱領)이 되었느니라. 삼재(三才)를 거느리고 삼계(三界)를 세워서 건곤(乾坤) 곧 하늘과 땅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도 이 하나이니라. 바로 이 하나가 태(胎)·란(卵)·습(濕)·화(化)의 사생(四生)을 낳고 사상(四相)을 정위(定位)하고 사방(四方)에 통하고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四季)를 구분했느니라.”

무극 안에 한 점의 영성

이 하나는 오곡(五穀)을 낳고 오기(五氣)를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행(五行)도 생기게 했느니라.

이 하나는 육미(六味)를 낳고 육기(六氣)를 분성(分性)했느니라. 육효(六孝)를 안배하고 육축(六畜)을 화육하고 육도(六道)로 운회(輪廻)케 하느니라.

이 하나는 일곱 개(七)의 구멍을 낳고 칠정(七情)까지도 생기게 했느니라. 방위(方位)마다 칠숙(七宿)·일곱 별을 세웠으니 곧 북두칠성이 그것이니라.

이 하나는 팔괘(八卦)를 낳으니 이를 팔대신성(八大神聖)이라 하느니라. 팔방(八方)을 나누고 팔해(八海)를 제어하여 팔부용신(八部龍神)을 생기게 했느니라.

이 하나가 구강(九江)을 낳고, 구곡주(九曲珠)를 정하고, 구궁(九宮)을 구별하고 구관(九關)을 있게 하여 구전(九轉)하여 단(丹)을 이루게 하느니라.

이 하나는 십(十)과 천(千)을 낳고 십불(十佛) 하여금 온 세계를 보살피게 하느니라. 사방(十方)을 안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십전염군(十殿閻君)을 두게 했느니라.

이 하나는 무극(無極)에서 비롯된 선천 운화(先天運化)이니 천불만조(千佛萬祖)와 무수한 진인(眞人)을 낳았느니라. 별(星)과 산(山)하와 조목(草木)과 만백성을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이니라.

이처럼 하나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의 현묘(玄妙)한 이치는 말로 다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로 깨달아 얻게 되면 만사가 해결되고 사생(死

일·삼·오(一·三·五)의 수(數)와 이·사·二·四의 수에 대한 가르침을 바라옵니다.”

달마는 대답했다.

“일·삼·오(一·三·五)의 수는 합하면 구(九)가 되지 않나. 역(易)에 이르기를 양(陽)은 구수(九數)를 쓴다(用)고 했느니라. 이·사·二·四의 수는 합하면 육(六)이 되지 않나. 역(易)에 이르기를 음(陰)은 육수(六數)를 쓴다(用)고 했느니라. 구(九)는 양에 속하니, 양은 가법고 맑은 기(氣)를 갖는 것으로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느니라. 육(六)은 음에 속하니, 음은 무겁고 탁한 기를 갖는 것으로 아래로 내려와 응고하여 땅이 되었느니라. 수도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눈 귀 코 혀가 四大苦海

(六)이 되니 역에서는 음(陰)이 육수(六數)를 쓴다고 했느니라. 구(九)는 양에 속하니, 양은 가법고 맑은 기(氣)를 갖는 것으로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느니라. 육(六)은 음에 속하니, 음은 무겁고 탁한 기를 갖는 것으로 아래로 내려와 응고하여 땅이 되었느니라. 수도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三寶를 연마 일품 이루면 십전염군도 능히 피하고 현빈의 문으로 출입

생도 없느니라.”

스승의 자상한 가르침에 해가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뭉클 솟아올랐다. 그는 하나야말로 선천(先天)의 대도(大道)이며 무궁한 조화(造化)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다. 절로 마음이 밝아오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였다.

그러나 해가는 그럴수록 더욱 깊이 알고 싶은 욕구를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스승이 말한 일·삼·오(一·三·五)의 수(數)의 이치는 정미(精微)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 하도(何圖)로 귀결되는 하늘(天)의 생수(生數)임을 그는 알았다. 마찬가지로 땅(地)에도 생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사·二·四의 수리(數理)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이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답함을 벗을 길이 없었다.

해가는 스승 달마 조사에게 경건하게 예의를 갖춘 다음 두 무릎을 꿇고 앉아 간청했다.

“스승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는

탁함을 떨쳐 버리고 맑음이 머물게 해야 하느니라. 삼교(三敎)의 성인(聖人)은 예외 없이 일·삼·오(一·三·五)를 합친 구수(九數)로 된 도(道)를 닦았느니라. 이·사·二·四를 합친 육수(六數)는 쓰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천당(天堂)과 지옥(地獄)도 바로 수리(數理)의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善)을 행하면 천당으로 올라가고 악(惡)을 행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이치는 자명한 것이니라. 수도하는 사람이 방문(방문)을 피하고 정문(正門)으로 들어가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느니라.”

해가는 두 손을 맞잡은 자세로 거듭 스승에게 물었다.

“이·사·二·四의 수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 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이(二)는 한 마디로 심원의마(心猿意馬)를 말하는 것이니라. 심원은 원승이같이 번덕스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의마는 말처럼 날뛰는 뜻(意)을 말한다 것쯤

◇이흥기(1956-) 작 달마도(중이에 수묵).

은 그대로 알 것이였다.

사(四)는 눈, 귀, 코, 혀 곧 사상(四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二)와 사(四)가 합하여 육근(六根)이 되고 육근이 육적(六賊)으로 화하여 분출(分出)하느니라. 육도(六道)도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느니라. 그래서 인도(人道)는 돌고 축도(畜道)는 넷이라고 하느니라. 대저 사람의 진성(眞性)이 어머니 뱃속인 선천시절(先天時節)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일기(一氣) 곧 한 기운으로 상통하느니라. 그때는 심의(心意)가 한 데로 모이고 사상(四相)도 화합하느니라. 오로지 한 구멍(一竅)이 있어 삼보(三寶)로 통하고 오원(五元)이 혼합하여 일체(一體)를 이루니 능히 움직이되 맑은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열 달이 차서 만삭이 되면 마치 오이가 익어 꼭지가 떨어지듯 한 주먹 고깃덩이가 세상에 떨어지게 되는데 태중(胎中)을 벗어나서 태를 뱉을 때 선천의 기운은 거두어지고 후천의 기운을 받게 되느니라. 아기가 왜 큰소리로 울며 세상에 나오는지 아는가? 그것은 이제 고해(苦海)에 떨어져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해가가 스승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고해란 사바 세상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뜻이라도 있는지요?”

달마는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눈, 귀, 코, 혀를 일컬어 사대고해(四大苦海)라고 하느니라. 본성이 눈을 통해 소모되면 난생(卵生)으로 떨어지고, 본성이 귀로 소모되면 태생(胎生)으로 떨어지고, 본성이 코로 소모되면 화생(化生)으로 떨어지고, 본성이 입으로 소모되면 습생(濕生)으로 떨어지느니라. 여기에 심의(心意)가 한 번 동하면 육육(六慾)이 생기니, 육진(六塵)을 일으키면 무겁고 탁한 기운이 덩어리가 되어 지옥이 되느니라. 사람이 집중으로 전생(轉生)하고 집중이 사람으로 전생하니, 날아서 죽고, 죽은 뒤 태어나는 운회가 그치지 않느니라. 본래 사람의 본성은 선(善)한 것으로 천성과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습관에 따라 차츰 멀어졌으니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달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승을 읊기 시작했다.

“삼귀요(三歸五戒)의 법어(法語)로 청정(淸淨)히 하고, 그대의 영명(靈明)한 현관(顯觀)을 지점(指點)하노라. 삼심사상(三心四相)을 모조리 쓸어내고 삼악팔사(三惡八邪)를 깨끗이 제거하라. 삼보(三寶)를 연마하여 일품을 이루면, 육적(六賊)을 거둬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라. 호흡이 풀려 한 구멍(一竅)으로 돌아가니, 현빈의 문(玄

靴之門)으로 출입하게 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고뇌에서 벗어나니, 십전염군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신불(神佛)의 도(道)이니, 행주좌와(行住坐臥)를 언제나 마음에 담아 들지어다.”

해가는 감격하여 온몸이 떨렸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승을 우러러 경의를 표했다.

“스승님의 과분하신 가르침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저의 백배(百拜)를 받으소서.”

해가는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백 번의 절을 달마에게 올렸다. 백배는 사은(謝恩) 예절의 극치인 동시에 상징이었던 셈이다. 해가는 다시 달마를 우러러보며 가르침을 청했다.

“스승님의 자비를 간청하나이다. 삼관구경(三觀九竅)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즉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곧게 닫은 입에선 아무런 말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해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기다릴 따름이었다. 이윽고 달마가 눈을 뜨며 말문을 열었다.

“삼관구경(三觀九竅) 세 개의 관문과 아홉 개의 구멍을 이르는 것이니, 그렇게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을 알면 십전염군도 능히 피할 수 있고, 효(孝)를 뽑아 내어 상(尙)을 변환시킬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 같은 초입자는 기초도 닦지 않은 터에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지어다. 삼관구경의 도는 이렇하여 최상승(最上乘)이라고도 하느니라. 능히 범골(凡骨) 즉 보통 사람을 선진(仙眞) 곧 신선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니, 진성(眞性)의 일점(一點)은 삼계(三界)를 초월하여 사방(十方)의 만령(萬靈)을 모두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니라.”

저의 백배를 받으소서

해가는 달마 조사의 엄숙한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옷매 무새를 바로하고 침착하게 스승에게 물었다.

“성명(性命)이라는 두 글자의 근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어느 곳에 안신(安身)하여야 하는지도 교시(敎示)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는 은유법으로 대답했다.

“잠자는 곳은 산 속 바위 틀이라지만, 삼시간에 바다에 날고 하늘에도 오른다. 있는 곳은 항상 밝아 밤이 없지만, 가는 곳은 바다와 같이 넓고도 넓도다. 일월갑자(日月甲子)를 운행하니 불도(佛道)의 종지(宗旨)를 증명하도다. 아침은 동녘에서 뜨고 저녁은 서녘에 지니, 자오남북(子午南北)이 상통하도다. 황정(黃庭)을 돌아와 편히 쉬니, 그 묘한 작용의 황홀함이 무궁하도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강정할 때 운명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승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강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남골당, 기족 남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강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관,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지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양(+)의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한다. 이 (+)·(-)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명에서는 특별한 지기가 발생하는데, 이 지기가 생기(生氣)이며,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에서-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가운데 작용하는 곳에서는 명령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함으로써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명당 현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변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변성한 기운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에는 「월간역학」 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액담지봉 1세트 무료 증정.
●월간역학 1년호(창간호-2001년 8월호)를 88만원에 판매하며, 단,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월간역학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풍물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한국서예협회) 서울시 중구 경희동 2가 303-15, 청옥빌딩 101호

명당 탐지기 - 관룡자

9월 15일(土) 충남 예산의 명당 풍수견학, 회비 2만원(교룡편, 중식포함)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운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깊이 있게 알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통일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명64」,
3월호에는 「월간신수」와 「법문공」,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5월호에는 「조선의 산수이정법」,
6월호에는 「조선의 무적」,
7월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대하여,
8월호는 「중국인간에 전해지는 최후의 비밀」,
9월호에는 「한기위 차례 지내기」를 특집으로 실었습니다.